

‘그림의 떡’ IPO 청약... 개미들은 ‘공모주펀드’가 유리

대어급 IPO 청약 경쟁률 치솟아 인기 공모주 청약 댄 ‘공모주펀드’ 자산운용사가 기관투자자로 청약 수익 청약증거금 없이도 투자 가능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등 잇따른 IPO(기업공개) 광풍에 ‘공모주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수억원의 청약증거금 없이도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어 개미(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다.

공모주펀드는 자산운용사가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수익을 내는 펀드다. 평소에는 주로 채권을 담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기업의 신규 상장 시 있을 때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다. 개인투자자가 직접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려면 청약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개

〈공모주펀드 현황〉

(단위: 억원, %)

| 펀드 | 설정일 | 순자산 | 3개월간 수익률 |
|------------------------|------------|------|----------|
| KTB코넥스하이일드(채권혼합) | 2016.07.11 | 2690 | 3.5 |
| KTB공모주하이일드(채권혼합) | 2015.02.16 | 2639 | 2.1 |
| 에셋원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주식혼합) | 2020.04.10 | 2462 | 7.9 |
| 유진챗피인공모주(주식혼합) | 2011.01.26 | 2015 | 7.9 |
| 에셋원비트(BIT)플러스공모주(채권혼합) | 2017.12.13 | 1758 | 1.7 |
| 교보약사공모주하이일드플러스(채권혼합) | 2014.10.10 | 1608 | 5.6 |
| DGB공모주플러스(채권혼합) | 2015.03.06 | 1488 | 2 |
| 흥국공모주하이일드(채권혼합) | 2014.04.21 | 1062 | 5.5 |
| 에셋원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주식혼합) | 2018.04.05 | 1006 | 13.5 |
| KTB플러스찬스5(채권혼합) | 2003.12.17 | 828 | 0.8 |

미 청약 경쟁률이 워낙 높아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1억원을 납입해 5주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공모주 일반 청약 경쟁률이 치솟은 상황에서 공모주펀드의 경우 10% 우선 배정 혜택이 있어 투자금 대비 공모주를 더 많

이 배정받을 수 있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모주펀드인 교보약사공모주하이일드플러스와 흥국공모주하이일드 모두 SK바이오팜 주식을 각각 3만9872주, 2만8304주 배정받았다. 두 펀드 모두 순자산 가치

를 비교했을 때 각각 2.16%, 1.9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유주식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

SK바이오팜 주식 배정 후 두 펀드의 수익률도 상승했다. 지난 7월 2일 상장한 SK바이오팜의 공모주 청약이 흥행에 성공하고, 3거래일 연속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해당 공모주를 담은 공모주펀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실제로 교보약사공모주하이일드플러스의 경우 SK바이오팜 주식 배정 후 3거래일간 기준가가 7.0% 상승했다. 흥국공모주하이일드는 같은 기간 6.63%의 수익률을 보였다.

한편 개인투자자가 SK바이오팜 청약 증거금으로 1억원을 납입해 12주를 배정받았다고 가정하면, 7월 3일~7일 간 198만6000원의 이익을 낼 수 있었다. 청약 증거금 대비 수익률은 1.98%다. 공모주펀드의 수익률이 세 배 이상 높은 셈이다.

또한 카카오게임즈의 코스닥 시장상장과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에 코스닥벤처펀드도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공모주펀드의 일종인 코스닥벤처펀드는 지난 2018년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 중 하나다. 벤처기업 신주에 15%,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기업 자산 35%에 투자한다. 코스닥 IPO 물량은 30%를 우선 배정받고, 개인투자자에게는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5월 1.5조원대였던 공모주펀드 규모는 3.2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모주펀드의 평균 주식 편입 비중은 8~12% 수준”이라며 “공모주펀드는 주식시장과 공모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았는데, 2020년에는 IPO가 활성화되면서 수익률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KB證, 통합자산관리플랫폼 5조 돌파

대표 랩 상품 ‘KB 에이블 어카운트’

KB증권의 대표적인 일임형 랩 어카운트 서비스 ‘KB 에이블 어카운트(able Account)’가 출시 3년 3개월 만에 잔고 5조원을 돌파했다.

‘KB able Account’는 지난 2017년 7월 출시한 통합자산관리플랫폼(UMA) 서비스로 하나의 계좌에서 국내외 주식은 물론 채권,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투자자산을 거래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B able Account’는 서비스 출시 이후 불과 1년여 만에 잔고 1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 3월, 10월, 11월 각각 잔고 2조원, 3조원, 4조원을 차례로 돌파했다. 이후 출시 3년 남짓한 기간 만에 잔고 5조원을 달성했다.

KB증권 관계자는 14일 “정통 자산관리를 안착 시키려는 회사의 정책적 방향성과 이를 실현하는 영업점 PB의 노력, 다양한 성향의 고객을 아우르는 서



‘KB 에이블 어카운트(able Account)’ 잔고 5조원 돌파를 기념하며 박정림 KB증권 사장(왼쪽 세 번째), 김영길 WM부부장(두 번째), 이흥구 WM총괄본부장(오른쪽 첫 번째), 김원경 WM사업본부장(왼쪽 첫 번째), 김유성 투자솔루션센터장(오른쪽 두 번째)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증권

비스 라인업 등이 맞물려진 성과”라면서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KB증권 랩 어카운트 전체 수탁고도 8조원 수준에 근접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KB able Account’ 서비스 모토는 ‘모두를 위한 자산관리서비스’다. 이를 위해 업계 최저수준의 최소가입금액(1000만원)을 토대로 고객 유형에 맞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세분화된 고객 세그먼트에 맞는 새로

운 자산 운용 서비스를 매년 추가해 제공하고, 글로벌 대체 상품과 법인 고객을 위한 채권투자형 상품에서도 꾸준한 자산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고액자산 VVIP 고객을 위한 HNWI 전용 서비스를 본격 출시했으며, 외부위탁운용(OCIO) 자금도 시장 대비 준수한 수익률로 입소문을 더해 가며 약 1조원의 자금을 유치하는 등 점점 그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손영지 기자 sonumij301@

삼성증권 해외주식 입고·거래 댄 최대 1000만원 리워드

삼성증권은 최대 1000만원의 리워드 혜택을 제공하는 해외주식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규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 모두 해당된다.

삼성증권 홈페이지에서 해당 이벤트를 신청한 후 타사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1000만원 이상 입고해야 한다. 이후 이벤트 기간 안에 온라인으로 1000만원 이상 거래한 후, 오는 11월 30일까지 잔고를 유지하면 된다. 입고 금액과 거래 금액은 이벤트 기간 중 누적으로 합산한다. 1000만원 시 1만원, 5000만원 시 5만원 등 입고 금액에 따라 리워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태하 기자 alvin@

“미래 먹거리 위해 경쟁력·체질 강화”

롯데건설 창립 61주년 비대면 행사 하석주 대표 축하 메시지, 당부 전하

롯데건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동참해 창립 61주년 기념행사를 비대면 행사로 진행한다. 14일 밝혔다. 롯데건설의 창립 기념일은 15일로 올해는 임직원이 휴가에 들어간다. 하석주 사장은 사내 인트라넷으로 임직원에게 축하 메시지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올해의 롯데건설인 등에 대한 포상은 개인별로 전달한다.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사진)는 “롯데건설은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



랑과 신뢰받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61주년 롯데건설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경쟁력과 체질 강화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3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자 비상경영체제 행동 강령과 윤리경영 실천 선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美 대선 친환경 공약 대표 수혜주 국내 1위 수준 바이오 중유 생산

株라쿨라의 종목 바이오디젤·중유 생산 | 제이씨케미칼 |

선박 바이오 중유 사용 댄 큰 수혜 인니 신수도 토지경작권 취득 호재

독립리서치리서치알음최성환수석연구원은 14일 “미국 대선의 ‘친환경 공약’에 주목해야 한다”며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제이씨케미칼의 목표주가를 9700원으로 제시했다. 현재주가 대비 72% 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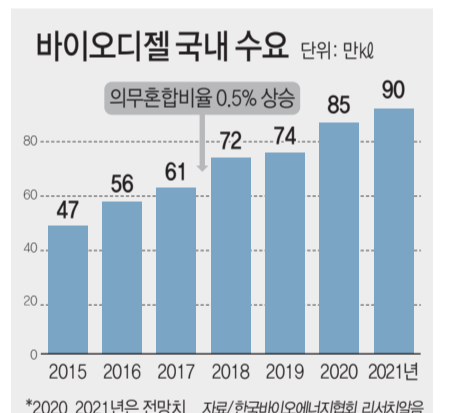
제이씨케미칼은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현재 미국의 정부사들은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기존 원유 정제시설을 바이오디젤 생산 설비로 전환하고 있고, 글로벌 선사를 통한 바이오중유를 원료로 활용할 채비를 갖추면서 제이씨케미칼의 사업 부문이 재평가받고 있다.

국내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은 2015년 2.5%에서 2019년 3.0%로 높아지고 있다. 의무혼합비율은 3년 주기로 상향되는 만큼 2021년에는 또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국내 바이오디젤 시장은 1조원 규모로 0.5% 상승 시 1500억 원 가량의 시장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친환경 이슈로 선박용 연료도 바이오중유로 대체 중이다. 지난달 20일 HMM(현대상선)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현대중공업 등과 함께 바이오중유사용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최 연구원은 “제이씨케미칼은 지난해까지 바이오중유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국내 1위 수준의 바이오중유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면



서 “월등한 바이오중유 생산성(cap), 울산을 거점으로 한 유리한 바이오중유 운반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선박 바이오중유 사용이 늘어날 시 가장 큰 수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신수도 예정지에 취득한 토지경작권(HGU)의 가치도 상승하고 있다. 제이씨케미칼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로부터 2551ha(동사가 확보하고 있는 총사업지가 면적의 약 15.4%)에 대한 토지경작권을 취득했다.

최 연구원은 “허가기간은 35년이고, 이후 25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기간 종료 후 갱신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구적 허가”라면서 “총 사업지가 면적 중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2차 HGU 수속을 진행하고 있어 승인면적의 지속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HGU 승인을 받은 지역은 향후 택지 변경 등의 옵션을 고려할 수 있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으로 상승한 자산가치를 이용해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수익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리서치알음이 예상하는 올해 제이씨케미칼의 영업이익은 168억원으로 전년보다 29.2% 증가할 것으로 봤다. 매출 역시 25.6% 늘어난 2542억원으로 전망했다. 적정주가는 2021년 예상 주당 순이익(EPS) 809원에 추가수익비율(PER) 12배를 적용, 기존 6200원에서 97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손영지 기자